

“호남 숙원사업은 대한민국 미래동력 중추…예산 확보 최선”

새누리-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

광주시 군공항 이전 등 건의
전남도 17개 사업 지원 요청에
이정현 대표 적극 지원 약속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등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도는 23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운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전북·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위원장, 주광덕 국회 예결위 간사, 권석창·성일종 예결위원, 시·도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시와 도에선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 시·도 간부들이 함께 했다.

시는 이날 현안사업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에너지밸리 조성 특별법 제정 ▲전장 등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기반 조성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사회협약 법제화 등 5건을 건의했다. 국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사업(403억원)·무등산 군부대 이전(50억원)·백운광장~주월교차로 신설(50억원)·광주~순천간 경전선 전철화(48억원) 등 모두 15개 사업, 1538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에너지 신산업클러스터 지원법 제정(가) ▲광주연구개발특구 확대지정(나) ▲농어촌발전 고나련 법령제정 ▲여수세계박람회장 지방세 감면기한 연

■광주·전남 주요 현안 및 구비지원사업 ◆광주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
-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
- 남구 도시첨단단지 진입도로 개설

◆전남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확정
-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단선 전철 건설
-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장 ▲화순탄광지역 대대산업육성 지원 등 5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2000억원)·남해안철도 건설(3000억원)·연도 및 연륙교건설(2110억원)·무인기 개발성능 적합성 시험평가 기반구축(80억원) 등 17개 사업(건의액 1조8000억원)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윤장현 시장은 “국비지원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광주는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는데, 본질적인 문제인 노사문제를 잘 풀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지사는 “주력 산업들이 국가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 GRDP의 93%가 3개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제조업 3대 주력산업이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설명했다.



3일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7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새누리당 전북·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윤장현 광주시장·이낙연 전남지사·송하진 전북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현 대표는 “저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준비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면서 “저는 이날 다루게 될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도 없이 보고를 받았고 현장도 둘러봤다.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호남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동력에 중요한 사업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리퍼트 美대사의 ‘광주 사랑’

내일 취임 후 세번째 방문…윤시장 면담·기아 야구 관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오는 25일 광주를 방문한다. 지난 2014년 10월 취임이후 광주 방문만 3번째다. 역대 주한 미국대사가 이처럼 광주를 자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리퍼트 대사는 25일 광주를 방문해 윤장현 광주시장을 면담한 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윤 시장과의 면담은 두번째다. 이번 면담은 윤 시장이 지난해 위암 수술 당시 리퍼트 대사가 쾌유를 기원하는 난을 보내온 것을 인연으로 인사차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과 리퍼트 대사는 지난해 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면담을 가졌었다. 당시 리퍼트 대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7월3일 광주를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광주 수피아여고를 방문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어 아메리칸 코너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주 목을 받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미국 농구 대표팀을 격려



하고, 경기를 관람한 뒤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 참석했다. 리퍼트 대사는 며칠 뒤인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묘지를 돌아보면서 1980년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열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라며 “이런 용감한 분들과 다른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 세계 선진 민주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 할 수 있었

다고 생각한다”면서 광주에 대한 애정을 적극 표현했다.

리퍼트 대사는 올해 전남대 특강과 5·18 기념재단 방문을 위해 광주를 방문해 또 한번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 1980년 이후 반미(反美)의 총본산격이었던 전남대 캠퍼스를 미국대사로서는 처음 방문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5·18 기념재단을 방문, 미국 정부의 5·18 기록물 제공에 대한 요청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향후 기록물 공개도 주목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리퍼트 대사가 광주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광주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광주를 이렇게 표현했다. “광주는 언제나 풍요로운 문화와 역사가 가득한 도시이고, 광주시민들로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한 통합과 수용 등 광주지역 전체에 도움이 될 여러 현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광주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한국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호남권 최고위원 3명 임기 쪼개 순번제로

시도당위원장들 누가 먼저 말할지 26일까지 교통정리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선거가 끝나면서 권역별 최고위원에 전임하기 위한 물밑 살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부분 권역에서 최고위원 임기(2년)를 1년씩 쪼개 돌아가면서 맡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첫 임기가 상징성을 띠는 만큼 시도당위원장들이 서로 먼저 자리를 차지하려는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선 최고위원을 돌아가며 맡게 사실상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역별 최고위원은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등 5개 권역에서 1명씩이며, 시도당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뽑는다.

23일 당 선관위에 따르면 일정상으로는 26일까지 시도당위원장들이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자체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이 24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임기를 나눠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일한 현역의원인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 위원장이 원외에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권의 심장부인 광주에 단 한명

의 현역 의원이 없는 만큼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광주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맡아야 호남 민심을 중앙당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은 “제가 유일한 현역이어서 주변에선 다 제가 최고위원을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외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임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들이 먼저 하겠다면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형석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상황이 어려운 광주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며 “먼저 최고위원을 하고 싶지만 다른 분들과 얘기해보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